

# 김현숙, 생계 위해 연기... “아들은 삶의 원동력”

“개그우먼으로만 알아”...연극영화과 졸업 후 배우로 먼저 데뷔 ‘사내맞선’ 사대GO푸드 레토르트 식품개발 1팀 부장 ‘여의주’역

아직도 김현숙(44)을 개그우먼으로만 아는 시청자들이 많다. 연극영화과 졸업 후 배우로 먼저 데뷔했는데, ‘개그우먼이 연기도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할 수밖에 없다. 연기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이다. 영화 ‘친구’(감독 박경택·2001) ‘ 챔피언’(감독 박경택·2002) ‘미녀는 괴로워’(감독 김용화·2006) 등을 거쳐 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17(2007~2019) 주연도 맡았다. 최근 막을 내린 SBS TV 드라마 ‘사내맞선’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져 SNS에 해명 글을 남기곤 했다.

“반응이 재미있었지만 조금 씁쓸했다. 연영과 친구들끼리 ‘연출해도 되겠어’ ‘연기해도 되겠어’라며 장난 쳤을 때가 떠올랐다. 웃기면서도 ‘덕을 보네’ 싶더라. 개그우먼으로 봤을 때 ‘연기 잘 하는 것처럼 보이냐’라고 생각했다. 이번 계기로 ‘김현숙이 원래 배우였구나’라고 알게 됐으면 더욱 좋은 일이다.”

사내맞선은 회사 사장 ‘강태무’(안호성)와 맞선을 보게 된 직원 ‘신하리’(김세정) 이야기다. 김현숙은 GO푸드 레토르트 식품개발 1팀 부장 ‘여의주’로 분했다. 안방극장 복귀는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7 이후 3년여 만이다. 중간에 웹드라마 ‘공짜: 공기타짜’(2021)에 출연했지만, 지상과 작품은 오랜 만이기에 “누를 안 끼쳐야겠다”는 마음이 컸다. 한설희·홍보희 작가와 막돼먹은 영애씨로 인연을 맺어 신뢰도 두터웠다.

김현숙은 “한설희 작가한테 먼저 연락이 왔다. (영애씨로) 나랑 10년 넘게 함께 했는데, ‘분량이 크지 않다’며 미안해하며 얘기를 꺼내더라”면서 “고맙게도 해주지만 ‘조금 더 분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지만 별로 늘지 않았다”며 웃었다. “이런 역은 줄타기를 잘해야 해 자신이 없었다. 내가 돈 보려고 오버하지 않고 조화를 이뤄야 했다”며 “어떻게 하면 적은 분량 안에서 시청자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낼까?’ 고민했다. 각

진 안경, 비비드한 슈트 등 의상, 메이크업에 신경을 많이 썼다. 요즘은 회사도 정장만 입지 않아서 재킷에 조거팬츠 등을 믹스매치했다”고 귀띔했다.

여부장은 신하리 직장 선배이자 조력자로 활약했다. 유쾌하고 호통할 뿐 아니라 친근하면서 인간적인 매력도 드러냈다. 특히 여부장과 식품개발 1팀 ‘계민’(임기홍) 차장이 사내연애하는 모습이 재미를 줬다. “초반에 러브라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9부엔 나올 줄은 몰랐다”며 “사내연애 추천하냐? 예후, 영애씨도 워낙 사내연애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사내 연애는 알려지면 좋지 않다. 주위에서 공시력 거리는 생각만 해도 힘들다”고 짚었다.

“러브라인 상대 외모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웃음) 기홍 오빠가 뮤지컬배우 출신인데, 3~4년 함께 일해 친하다. 포장마차 신도 웃음이 터질까 봐 리허설을 많이 했다. 오빠랑 하는 신은 거의 다 애드리브였다. 기홍 오빠를 포함해 개발1팀 자체 합이 잘 맞아서 우리끼리 연기하면서도 재미있었다. 박선호 PD님이 마음을 열어줘서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다.”

그를 ‘구구단’ 출신 김세정(26)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세정이는 에너지가 넘쳤다. 그 나이 답게 좋은 욕심이 많아서 다 잘하고 싶어하더라”면서 “촬영 분량이 많다 보니 옆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 보이기도 했다. ‘넌 잘하니까 쉬엄쉬엄 해’라고 해도 ‘열심히 안 하는 애들 보면 못 견디겠다’고 하더라. 우리 나이 돼 보라고 했다”며 웃었다. “아들 하민이는 (김세정이 모델인) ‘비오프’를 엄청 좋아한다. 처음에는 ‘비오프’ 누나랑 촬영하는 거야?라며 호기심을 가지더라”면서 “엄마 나온다’ 하면서 TV 내용이 금새 유튜브를 보더라. 아직 드라마 내용을 이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사내맞선은 국내의 반응이 뜨거웠다. 1회

시청률 4.9%(닐슨코리아 전국기준)로 시작, 12회 11.4%로 막을 내렸다.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5위까지 오르며 ‘K-로맨스’ 저력을 보여줬다. “의외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울하고 지쳐있지 않았느냐. 그 동안 장르물 등 어두운 작품이 많았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작품이 드물었다”며 “PD님이 클리셰 덩어리를 비틀어서 만회적인 기법을 쓴 게 먹혔다. 우리나라에서는 클리셰가 반복된다고 하지만 해외에선 신선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고 짚었다.

김현숙과 막돼먹은 영애씨는 때려야 떨 수 없다. 연기 인생의 3분의 2를 영애씨로 살았다. “이미지가 고착화 됐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제 많이 내려놨다. 신인으로 돌아가서 분량을 떠나 많은 작품에 출연해 새로운 모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더 보여야지’라는 욕심은 내려놨지만, 더 깊이있게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애씨 이미지는 억지로 안 깨질 것 같다. 사실 박수 칠 때 떠나려면 시즌6에서 멈춰야 했지만, 감사하게도 서른 살에 시작해 마흔 두 살까지 했다. 꾀다운 나의 배우 인생이다. 그 때는 대역도 없고 주 52시간제 시행 전이라서 밤새기 일쑤였다. ‘어떻게 했냐?’ 싶고 지금 하려면 못할 것 같다. 연기적으로 아쉬운 점은 많지만, 나의 뼈를 갈아 넣어서 해 후회가 없다.”

김현숙은 지난해 JTBC 예능물 ‘내가 키운다’에서 홀로 아들 하민을 키우는 일상을 공개했다. 2014년 동갑내기 사업가와 결혼, 6년 여만인 2020년 이혼했다. 부모님과 함께 경상남도 밀양에서 지내다 최근 아들과 함께 서울로 이사했다. 내가 키운다 출연을 결심했을 때 “사생활 공개 부담은 없었다”며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민이 의사가 제일 중요했다”며 “물어봤더니 ‘하고 싶다’ ‘재미있겠다’고 해 출연했다. 요즘은 하민이 팬도 많다”고 했다.



“예전처럼 일이 많이 없고 분량도 적지만 돈을 벌어야 한다.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피곤해도 시간 날 때는 아들과 여행을 간다. 워킹맘은 다들 느낄 텐데 매일 끝나고 아이를 챙겨도 항상 부족한 마음이 든다. 혼자서 멍 때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아들이 결핍을 덜 느끼도록 노력하고 있다. 열아홉 살 때부터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졌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여러 번 사기를 당하고 이제 아이도 혼자 키우다 보니 생계만큼 절실한 게 없다. 번아웃이 와도 아이 때문에 일을 하게 된다. 아들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새로운 사람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까. 극중처럼 현실에서도 분홍빛 로맨스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재혼은 절대 안 할 것 같다. 연애는 좋지만 누굴 만나든 서로 배려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누구를 맞고 싶은 생각이 없다. 어린 시절 ‘가족을 위해 살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결혼 해 아이를 낳을 줄은 몰랐다. 이제 얼마안테서 나를 독립하고 ‘즐기면서 살아보자’고 마음 먹었다. 지금은 제일 좋다. 하민이와 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고 싶다”고 했다.



## “소중했던 그 감정” 이효리의 ‘라메토크’

90년대에 연예인과 팬들은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 20일 ‘서울체코인’ 측은 15일에 방송된 2회에서 등장한 이효리, 은지원, 그룹 ‘코요태’의 신지, 김중민 그리고 단딘과 함께 한 90년대 이야기를 공개했다.

오래 전부터 스키여행을 고대했던 이효리는 가장 먼저 같은 회사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그룹 ‘젝스키스’의 리더 은지원이었다. 이들은 “같은 회사라서 얼마나 심적으로 의지했는디”라며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잠시 금새 투닥거리는 모습으로 친남매 같은 케미를 선보였다.

이어 이효리는 그룹 ‘코요태’의 신지와 김중민 그리고 단딘까지 ‘스키장 공개방송 모임’을 결성해 90년대 예능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90년대를 주름잡았던 그룹 ‘핑클’ ‘젝스키스’ ‘코요태’까지 모여 ‘라메토크’를 했고 이효리는 요즘 세대인 단딘에게 “너희는 몰라 그때 그 감성을, 얼마나 소중했다고”라고 말하며 감정에 젖은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결성한 ‘스키장 공개방송 모임’은 “옛날에 캠프 가서 팬들처럼 (연예인들이랑) 체육대회하고, 만남 자체가 귀했지”라며 만남을 위해 지주 했었던 것임을 알려 놀라움을 배가시켰다.

특히 신지는 가수 김원준의 팬클럽 캠프에서 노래를 불렀다가 가수 제안까지 받았다고 밝혔는데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 연예인들과의 소통을 꾀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알려졌다.

한편, 이효리의 스키장 두 번째 이야기는 22일 오후 4시에 티빙에서 공개된다.



## 김성규, 새앨범 ‘세이비어’ 하이лай트 메들리 발매

네번째 미니 앨범...내일 공개

그룹 인피니트 리더 가수 김성규가 새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소속사 더블에이치엔티는 20일 0시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성규의 네 번째 미니 앨범 ‘세이비어(SAVIOR)’의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을 공개했다.

‘인트로(INTRO)’를 시작으로 동명의 타이틀곡 ‘세이비어’, ‘마이 러브 윌 비 유어스(My Love Will Be Yours)’, ‘아이 데어 유(I Dare You)’, ‘안개’의 하이라이트 파트가 담겨 있다. ‘세이비어’는 미디어 테이프의 팝 장르로 반복적인 피아노 테마와 풍부하고 웅장한 기타, 드럼 사운드가 돋보이는 노래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세이비어’로 지칭하며 그 사랑에 헌신적인 가사가 특징이다. 김성규는 이번 앨범 타이틀곡 ‘세이비어’와 수록곡 ‘아이 데어 유’, ‘안개’ 작곡과 작사에 참여했다.

한편 ‘세이비어’는 오는 22일 발매된다. 앨범 발매 당일부터 24일까지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 ‘LV’를 연다.

또한 오는 6월 4~5일 부산에서 6월 11~12일 대구 ‘LV’ 추가 공연 계획을 확정했다.

뉴스

## ‘가왕’ 조용필, 9년만에 정규 20집 낼듯...콘서트도 준비



### 호랑이띠, ‘검은 호랑이의 해’에 컴백 예정

호랑이띠인 ‘가왕’ 조용필(72)이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에 컴백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중음악계에 따르면, 조용필은 올해 안에 발매를 목표로 정규 20집을 작업 중이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곡 수집 작업에 들어갔고 현재 선곡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호랑이띠를 맞아 연주부터 조용필이 새 앨범을 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지난 2013년 국내 음악계를 강타한 ‘바운스’가 실린 정규 19집 ‘헬로(Hello)’ 이후 약 9년 만에 발매되는 새 앨범이라 기대가 크다.

1968년 록그룹 ‘에트킨즈’로 데뷔한 조용필은 1976년 ‘돌아와요 부산항에’로 스타덤에 올랐다. 1980년 ‘장미의 여자’ ‘단발머리’ 등이 수

록된 1집으로 국내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가왕’ 자리에 올랐다. 팝 발라드부터 트로트, 민요, 가곡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울렀다.

올해 역시 서울 시내 주요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열기 위해 지난해부터 불색했다.

유명 공연장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스타디움과 아레나 투어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체육관 위주로 공연 일정 등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내에서 사실상 스타디움 콘서트까지 가능한 유일한 장소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이 올해 안에 리모델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그 이전에 이곳에서 공연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전언이다.

## “BTS 국내 콘서트 10번 하면 경제효과 12조”

방탄소년단(BTS)이 국내에서 연간 10회 공연할 경우 최대 12조2068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일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BTS가 국내에서 콘서트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1회 공연당 6779억~1조2207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산치는 문광연 문화산업연구센터가 콘서트 티켓과 기획상품 판매액, 외래 관광객의 관광 소비지출과 교통비, 숙박비 등을 종합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내놓은 것이다.

문광연은 코로나19 종식 후의 보복소비 등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외래 관광객 비중을 따라 시나리오별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했다.

외래관광객 비중이 최대 50%로 늘어난 경우 BTS 공연 1회당 소비총액 규모는 7422억원, 생산 유발효과는 1조220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706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1만815명으로 분석됐다.

문광연은 분석을 위해 BTS의 지난해 LA 콘서트와 올해 3월 서울 콘서트를 참고했다.

문광연은 “외래관광객 비중의 변화 범위는 지난해 미국 LA 콘서트 관람객 중 70% 이상이 LA 외에 다른 주(州)나 해외의 관객이었다는 기업 내부 자료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공연의 경우 방역조치로 1일 공연에 1만5000명의 관객밖에 수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 6만5000명을 기준으로 관객 수



를 산정하고 외래관광객 비중을 추정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은 BTS 콘서트를 예로 들어 분석했지만, BTS로 대표되는 K-팝 콘서트 개최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BTS 콘서트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시작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대중음악 공연산업을 필두로 문화, 관광 등 유관 분야를 활성화해 코로나를 더욱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랜선뷰티’ 내달 4일 첫방 콘텐츠 커머스 시장 합류

엔택트 시대 새로운 뷰티 예능이 온다.

채널 K-STAR는 20일 “MZ세대 뷰티쇼 ‘랜선뷰티’가 내달 4일 오후 8시 첫 방송된다”고 밝혔다. 배우 박은혜가 MC를 맡고 롯데홈쇼핑 쇼호스트 이수정, 메이크업 아티스트 수경 원장이 함께한다.

한정된 제품과 체험을 선보이는 수준을 넘어 랜선으로 트렌드 세터를 만나고 노하우를 공유한다. 워킹맘부터 커리어우먼까지 다양한 셀럽들이 출연한다. 뷰티의 범위를 메이크업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너뷰티부터 셀프 힐링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

초록캠미디어, 롯데홈쇼핑, 오로라미디어, 패션 도매 플랫폼 ‘골라라’가 공동 제작한다. 상품 판매와 콘텐츠를 결합한 ‘콘텐츠 커머스’의 한 형태다. 랜선뷰티에서 선보인 상품은 롯데홈쇼핑 TV홈쇼핑 방송과 모바일 생방송 콘텐츠와 판매를 연계한다. 현대홈쇼핑, NH홈쇼핑, 티몬 등도 콘텐츠 커머스 시장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